

일본, 에틸렌 생산량 변화 주목!

2년 연속 플러스 성장 전환 ... 정기보수로 공급부족 우려도

일본의 에틸렌(Ethylene) 생산이 4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의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 생산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던 1999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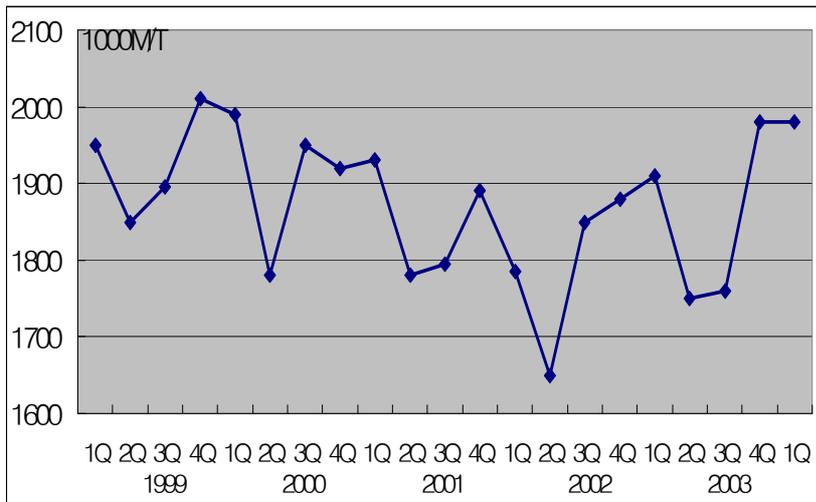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 국내수요 증가와 해외수요 확대에 따라 풀가동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에틸렌 생산은 2003년 737만톤을 돌파해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생산수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2004년에는 정기보수가 집중돼 있어 생산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산증가보다 공급부족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에틸렌 생산은 2003년 4/4분기 195만7000톤, 2004년 1/4분기 195만9000톤으로 2분기 연속 195만톤을 돌파했다. 1999년 4/4분기 및 2000년 1/4분기 이래 4년만의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Ethylene 생산추이



에틸렌 크래커 가동률은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100% 내외로 실질적으로 과거 최고의 생산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만, 2004년 에틸렌 총 생산량이 과거 최고수준이었던 1999년의 769만톤을 웃돌 가능성은 적은 상태이다. 일본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5개 크래커가 총 796만톤에 달하지만 2004년에는 7개 크래커가 정기보수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실질 생산능력은 760만톤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에틸렌 정기보수는 3월부터 시작돼 11월까지 계속되며 3

월 하순부터 6월 말까지는 2개 크래커의 정기보수가 겹쳐 생산손실이 특히 크다.

이미 일부 유도제품은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에틸렌 유도제품 등의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7>